

동학농민혁명과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

동학농민혁명 무장(茂長) 1차봉기시 수 십매 혹은 100여 매 이상의 포고문이 전국에 배포되었을 것이나 그 원본은 한장도 남은 것이 없고 필사본 8종이 있는바 이 모두에는 표현은 달라도 무장(茂長)이란 지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는 무장 지역의 세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뜻하며 아울러 손화중 대접주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 1, 수록(隨錄)에는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사운연구소간 권5, p157)
茂長縣騰上 東學人 布告文 (무장현등상 동학인 포고문)
- 2, 동비토록(東匪討錄)에는 (사료총서 권6, p159)
東學輩 本邑 布告文 茂長 (동학배 본읍 포고문 무장)
- 3, 출처 불명의 자료에 茂長縣 東學徒 布告文(무장현 동학도 포고문)
- 4, 정읍 향토현 기념관에 茂長 東學徒 布告文 (무장 동학도 포고문)
- 5, 오하기문(梧下記聞)에는 (사료총서 권1, p52)
琿準等 大會茂長懸 布告民間 (봉준등대회 무장현 포고민간)
- 6, 취어(聚語)에(총서 권2, p124) 茂長東學輩布告文 (무장동학배포고문)
- 7, 동학문서(東學文書)에는 (사료총서 권5, P136)
全羅道 東學輩布告文 茂長縣 (전라도 동학배포고문 무장현)
- 8, 라암수록(羅巖隨錄)에는 (사료총서 권2, p382)
茂長東徒 布告文 (무장동도 포고문)

무장현 동학도 포고문 (茂長縣 東學徒 布告文)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함은 그 인륜(人倫)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의 인륜은 세상의 의뎌미로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비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도한 후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루어 무장의 복을 가져 올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인효자에 하시고 신명 충예 하시어서 현량과 정직의 신하가 있어 잘 도와 다스리게 한다면, 요순의 교화와 문경의 치적을 틀림없이 바랄 수 있다.

지금의 신하된 자들이 보국은 생각지 않고 녹위만 도둑질하며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으면서 충간의 선비는 요사스런 말을 한다고 이르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고 이른다. 그러니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벼슬아치가 많다. 인민의 마음은 나날이 변하며 들어와서는 삶을 즐길 업이 없고, 나와서는 몸뚱이를 보존할 계책이 없도다. 학정은 날로 심하고 원성은 그치지 않으니, 군신의 의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명분은 무너지고 말았도다.

관자에 이르되 “사유(四維, 禮 義 廉 恥)가 펴지 못하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했다. 방금의 형세가 옛날보다 더함이 여기에 있다. 공경 아래로 방백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는 생각지 않고, 한갓 제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케 하는 꾀에만 빠져 있으며, 사람을 뽑아 쓰는 기구를 돈을 올귀내는 길로 만들고, 과거 응시의 장을 깡그리 교역하는 장터로 바꾸어 놓았도다. 많은 재물은 왕고에 들이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장물로 채우면서, 나라에서 쌓인 빚이 있는데도 채우거나 갚으려 생각지 않는구나.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음탕하고 안일에 빠져 두렵거나 꺼리는 바가 없어 팔도가 어육이 되고 만민이 도탄에 빠졌도다. 수령 방백의 탐학이 참으로 그러하니 어찌 백성들이 곧 궁치 않으리요.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요 그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 진다. 보국안민의 방책은 생각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만을 꾸미고 오직 제 혼자 온전할 방법에만 힘쓰면서 녹위만 도둑질 하니 어찌 다스려 지리요.

우리 무리가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흠을 갈아 먹고 임금의 옷을 입으니 나라의 위망을 좌시할 수가 없도다. 팔도 전국이 마음을 같이하고, 역조창생이 논의를 맞추어 지금 의기를 들어 보국안민으로 생사의 맹세를 삼는다.

오늘 이 광경이 비록 놀랄 만 하겠으나, 결코 두려워 말고 각각 자기 생업에 편안이 종사하고, 함께 태평의 세월을 빌고, 모두 임금의 덕화를 기린다면 천만 다행이겠노라.

茂長縣 騰上 東學人 布告文 (隨錄)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권5 p157 사운연구소 간

人之於世 最貴者 以其人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子慈孝 然後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則 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圖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詢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竊肥己 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返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 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 報國安民之方策 外設鄉第 惟謨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誰草野遺民 食君土 服君衣 不可坐視 國家之危亡 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警駭 切勿恐動 各安其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 수록엔 今舉義旗 四字が 빠져있음

東學輩 本邑布古文 茂長 (東匪討錄)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권6 p159 사운연구소 간

人之於世 最貴者 人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慈子孝 然後 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則 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圖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詢容 諫忠之士 謂之妖言 正直之臣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淪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竊肥己 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返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 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 報國安民之方策 外設鄉第 惟謀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雖草野遺民 食君土 服君衣 不可坐視 國家危亡 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警駭 切勿恐動 各安其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 가장 원형에 가까운 내용으로 보임

瑋準等大會 茂長縣布告 民間 (梧下記聞)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권1 p52 사운연구소 간

人之於世 最貴者 以其有 人倫而 君臣父子 人倫之大也 君仁臣直 父慈子孝 然後 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聰睿 使有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則 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圖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詢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竊肥己 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入王庫 返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 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 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 報國安民之策 外設鄉第 惟務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也哉 吾徒雖草野遺民 食君土 服君衣 不可坐視 ○○危亡 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保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警駭 切勿恐動 各安其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云云

※ 以其有 추가, 國家危亡의 國家탈루, 保國安民은 輔國安民의 오류

茂長 東學輩 布告文 (聚語)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권2 p124, 사운연구소 간

人之於世 最貴者 以其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慈子孝 然後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則 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圖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苟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以 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竊肥己 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返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 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 報國安民之方策 外設鄉第 惟謨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誰草野遺民 食君土 服君衣 不可坐視 國家之危而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警駭 切勿恐動 各安民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各安民業은 各安其業

全羅道東學輩布告文 茂長縣 (東學文書)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권5 p136 사운연구소 간

今於世 最貴者 以其人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子慈孝 然後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則 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欺國 圖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詢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萬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竊肥己 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返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 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 報國安民之方策 外設鄉第 惟謨獨念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誰草野遺民 食君土 服君衣 不可坐視 國家之危而 八路同心 億兆詢議 今學義旋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警駭 切勿恐動 各安其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 今於世는 人之於世의 오류, 不思欺國은 不思報國, 入無萬生之業은 入無樂生之業, 惟謨獨念之方은 惟謨獨全之方, 今學義旋은 今學義旗, 惟謨獨念之方은 惟謨獨全之方
今學義旋은 今學義旗

茂長東學徒 布告文 (정읍 황토현 기념관)

人之於世 最貴者 以其人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子慈孝 然後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則 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圖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詢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淪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怨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竊肥己 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返充私藏 國弓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 無○○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以也 奈之何民 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 ○國殘 不念 報國安民之○策 外設鄉第 惟謨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誰草野遺民 食君土 服君衣 不可坐視 國家之危亡 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光景 雖屬警駭 切勿恐動 各安其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 怨聲相續은 惡聲相續 國弓積累는 國有積累로 無所畏忌 良有以也
本削則國殘 安民之方策 今日之光景

茂長東徒 布告文 (羅巖隨錄)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권2 p382 사운연구소 간

人之於世 所貴者人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子慈孝 然後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佑明 則堯舜之化 文武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圖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詢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耳目 日益淪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怨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遂壞而無遺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當今之勢 有加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報國之忠 徒懷肥己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充於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耽 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 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圖報安民之策 外設鄉第 惟謨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誰草野遺民 食君土 依君服 不可坐視 國家之危亡 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旂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警駭 切勿妄動 乃安其業 共悅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 밑줄친 부분들은 모두 원형에서 변화된것을 표시하였으므로 앞서의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가 필요함

倡 義 文

東學史 吳知泳著 大光文化社 p119

世上에서 사람을 貴타 함은 人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父子는 人倫의 가장 큰 者라, 人君이 어질고 臣下가 곧으며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孝道한 後에야 國家가 無疆의 域에 미쳐가는 것이다. 同我 聖上은 仁孝慈愛 하고 神明聖 敕한지라 賢良方正之臣이 있어 그 聰明을 翼贊할지면 堯舜之化와 文景之治를 可히 바랄지라, 今日에 人臣된 者, 圖報를 思치 않고 한갓 祿位만 盜賊하여 聰明을 擁蔽할 뿐이라, 忠諫之士를 妖言이라 이르고 正直之人을 匪徒라 하여 안으로는 輔國의 材가 없고 밖으로는 虐民의 官이 많다. 人民의 마음은 날로 變하여 들어서는 樂生의 業이 없고 나가서는 保身의 責이 없다. 虐政이 날로 자라고 怨聲이 그치지 아니하여 君臣父子 上下의 분이 무너지고 말았다. 所謂 公卿以下 方伯守 令들은 國家의 危難을 生覺지도 아니하고 다만 肥己潤産에만 懇切하여 銓選의 門을 돈벌이로 볼 뿐이며, 應試의 場은 賣買하는 저자와 같았다. 許多한 貨賂는 國庫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個人의 私藏을 채우고 만 것이며 國家에는 積累의 債가 있어도 清償하기를 生覺지 아니하고 驕慢하고 奢侈하고 淫亂하고 더러운 일만을 忌憚없이 行하여 八路가 魚肉이 되고 萬民이 塗炭에 들었다. 守宰의 貪虐에 百姓이 어찌 困窮치 아니하랴, 百姓은 國家의 根本이라, 根本이 衰削하면 國家는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輔國安民의 策을 生覺지 아니하고 다만 제 몸만을 生覺하여 國祿만 없애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라. 우리 등이 비록 在野의 遺民이나 君土를 먹고 君衣를 입고 사는 者라, 어찌차마 國家의 滅亡을 앞아서 보겠느냐, 八域이 同心하고 億兆가 詢義하여 이에 義旗를 들어 輔國安民으로써 死生의 盟誓를 하노니, 今日의 光景에 놀라지 말고 昇平聖化와 함께 들어가 살아 보기를 바라노라.

甲午正月 日

湖南倡義所

全 瑋 準

孫 和 中

金 開 南 等

※ 責은 策이 맞을듯 하고,

管子曰 四維(禮 義 廉 恥)가 퍼지 못하면 이란 용어가 빠져있음,

茂長縣監 趙命鎬의 報告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권5 p159 사운연구소 간

본 내용은 수록(隨錄)의 기록중 먼저 茂長縣監上 東學人布告文이 실리고 이어 구수내에 동학도들이 집결하는 과정을 무장현감이 보고한 내용이다.

今月二十二日到付 ‘茂長縣監趙命鎬 呈內今十六日 本縣冬音峙面 堂山地 何許亂類輩幾千名 聚黨逼溜 從跡殊常是如 傳說浪籍 故出送 伶俐吏校 密密搜探 則此非本邑之民 舉皆他邑之民 而聚接于該村民人家 稱以東學徒是乎所 始也不滿百餘名 自十六日以十八日 數日之間 或夜或晝 徒四方來聚者 將爲千餘名 皆聚於該村前野 所住之處 相接靈法兩邑之界 是乎所 彼輩幾百名 往于法聖陳良面龍峴里 竹田所在處 刈竹爲鎗 是遣或派送各處村民家 如干所存 鳥銃與鑊器鎌鋸等物 一一搜奪以去是遣 渠所謂毀 其學反其學之人及曾前有嫌者 一竝捉去毆之打之是遣 其隣石橋村安德必家 有何許人質置米是加喻 白米六十餘石亦爲奪去 壞毀其家 該村宋京洙家產 又爲打破是乎所 以是而隣面搔擾平民渙散也 究彼輩之所爲 誠一變怪 其在近民 不得不禁止 故一邊遣吏鄉 據理曉喻 一邊送令飾 期圖解散 而彼輩之堂場氣勢 將近數千 以若邑力莫可退斥 而彼徒謂以日間移居他境云云矣 卽接彼徒呈稟則 亦當不日出境云是乎乃 內忽之跡殊常之類 莫可盡測 故使之吏更加密探則 或分隊或散處 將有次 次束裝之機 而所向之處 從難的探所問之設既如是 故爲先據實諜報 亦爲白乎旅.,

3월 22일에 접수된 무장현감 조명호(趙命鎬)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16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리에 수상한무리들 수천명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 그 종적이 이상하여 여러가지 풍설이 돌고 있으므로 영리한 이속·장교를 비밀리에 보내 수

탐한즉, 이들은 이 고을 사람이 아니고 거개가 다른 고을 사람인데 이 마을 민가에 모였으며, 말하기를 이들은 동학도라 하온바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6일부터 18일 까지의 사이에 혹은 낮에 혹은 밤을 타고 사방에서 모여들어 거의 1,000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당산마을 앞의 들판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영광 법성고을과의 접경지대이다. 이들 가운데 수백명은 법성 진량면 용현리(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용현마을)의 대밭에 가서 대를 베어 죽창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각 마을의 민가에 있는 엽총과 팽이·낮·가래 따위의 기물을 찾아 빼앗아 갔으며, 그들은 소위 동학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과거에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을 일일이 잡아다 구타하였다. 그리고 이웃마을 석교촌(石橋村)에 사는 안덕필(安德必)의 집을 습격하여 다른 사람이 맡겨 놓은 백미 60여 석을 뺏고 그 집을 부숴으며, 같은마을 송경수(宋京洙)의 집 살림을 역시 때려부셨다. 이 때문에 인접한 각 면이 시끄러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소행이 참으로 해괴하나 양민과 어울려 있으므로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속과 고을의 덕망가를 보내 이치를 따져가며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공문을 보내 해산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그 무리들 당장의 기세는 장차 수천명에 이르니 관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의 말로는 일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하고, 또 그 도당이 보내온 서명에도 역시 불일간 이 고을을 떠나겠다 하오나, 매우 수상한 무리들인지라 그 참뜻을 측량할 길이 없는고로 다시 이속으로 하여금 은밀히 염탐한즉, 대오를 짜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며 차차 장비를 정리하는 기색도 보이나 어느곳을 향할지는 탐지하기가 어렵다. 알아낸 바가 이와 같으므로 우선 확인된 정보를 위와 같이 보고한다고 하였다.

무장 현감의 보고가 3월 22일에 전주 감영에 도착한 점으로 미루어 전날인 3월 21일에 발송 되었을 가능성이 짙은데, 이즈음에 현감 조명호는 동학당이 어느날 전주를 향한다는 사실을 능히 짐작 하였을 터인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장에서의 마지막 정황을 서둘러 보고한 듯하다. 그는 이미 3월 11일자로 해주 판관으로 전임 발령이 난 뒤이며 후일 밝혀진 바로는 동학당이 무장에 모일당시 비단으로 창의기를 만들어 주며 아첨했다고 한다. (오하기문)